

진중권의 세상보기



정치권이 긴장을 하는 모양이다.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그를 견제하고 나섰다. 그의 직업은 교수. 그가 한 것이라곤 달랑 책 한 권 내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뿐. 그런데도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이 나라 정치권의 한심한 수준을 말해준다.

정의, 복지, 평화, 안철수가 던지는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된다. '정의'의 바탕에는 우리 경제가 아직 자본주의적 합리성도 갖추지 못했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는 봉건적 착취에 가깝다.

'복지'라는 키워드의 바탕에는 한국사회가 재생산의 위기에 빠졌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 그의 표현대로 '자살을 최고'는 현재가 없음을 의미하고, '출산을 최저'는 미래가 없음을 의미한다.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무한경쟁은 한국사회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평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

격에서 보듯이 현 정권 들어와 남북관계가 경색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악화됐다. 이명박 정권에게는 대북 협상의 전략은 물론이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전략적 사고 자체가 아예 없어 보인다.

안철수가 들고 나온 키워드는 독특한 게 아니다.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다양한 공약들의 교집합을 구하면, 어차피 정의, 복지, 평화의 세 마디로 모일 것이다. 심지어 집권여당에 속하는 박근혜 의원마저도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지 않던가.

그런데도 유권자들은 왜 하필 안철수에 게 열광하는가? 차이는 발언의 '신뢰성'에 있지 않을까? 흔히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이란 공약(空約)이라 부른다. 여야가 집권을 전후하여 입장을 180도로 바꾼 예를 유권자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

가령 박근혜씨가 열심히 '복지'를 역설하나,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의 공식입장이 '무상급식 막국물'이었음을

안철수 현상

유권자들은 기억한다. 민주당이 지금은 한미 FTA에 열심히 반대하나, 유권자들은 한미 FTA를 추진한 것이 노무현 정권이었음을 잘 안다.

매사 이런 식이나 간단히 해결될 문제도 정치권에만 들어가면 페르마의 정리처럼 난제가 되곤 한다. 문제는 '진보나, 보수냐'가 아니라 '상식이나, 비상식이나'라는 안 교수의 말은 이와 관련이 있다. 유권자들은 안철수를 통해 상식을 회복하고 싶은 것이다.

사실 국민들은 '실용'을 표방한 CEO 대통령에게서 바로 그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대는 무참히 배반당하고 말았다. 안철수 교수는 실용정권이 참담하게 실패한 그 지점에서 서서 '이제 정치적 소통의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팔로우워드'(follow-worthy)라는 안 교수의 표현. 현대의 대중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서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지도자만 따른다. 한

마디로 대중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는 리더십은 진정한 리더십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사실 국민들은 '참여'를 표방한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그런 지도자를 보았다. 하지만 그의 권력을 세운 대중의 참여는 통치기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안교수는 참여정부가 실패한 지점에서 대중의 참여로 집권만이 아니라 통치까지 하는 새로운 정치를 제안하는 셈이다.

똑같은 말을 해도 한 사람의 말은 아무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반면, 다른 사람의 말은 깊은 감동을 준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 차이가 텔레비전에 출연에 있다고 믿었던지 어떤 주자는 자신도 출연시켜 달라고 조르는 모양이다.

안철수에게는 있으나, 다른 주자들에게는 없는 그것은 바로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한 철학이다. 바로 이것이 여야의 주자들이 안철수를 질투하거나 공격할 시간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중고칼럼

오늘을 사는 삶의 지혜



강상원

는데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만큼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 생명존중 사상, 따뜻한 가정과 가족에 대한 개념, 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도덕과 윤리의식, 남을 배려하는 마음 등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절대적인 가치기준과 우선순위를 상실해 버렸다.

행복지수가 낮아진 것은 그만큼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한 가장 큰 이유는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때문이다. 끊임없는 비교의식과 경쟁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보다 더 돈을 벌면, 좀 더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사회 또한 바른 가치보다 돈과 성공을 더 좇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을 밟고 서서라든 이것들을 소유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허무함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삶은 마치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조용히 풀을 뜯다 갑자기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일제히 따라 뛰다가 결국 질벽 아래로 떨어져 죽는 스프링 박(영양)과 같은 삶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이나 성공보다 가치를 선택해야 한다.

2002년 월드컵으로 잘 알려진 축구선수 중 이영표 선수는 자신이 활동할 팀을 선택할 때 독특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다고 한다.

그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유럽 팀을 선택

하지 않고 가장 낮은 연봉을 제시하는 캐나다의 '화이트 캡스' 팀을 선택했는데 돈보다 진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운영되는 팀의 운영철학에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탁월한 선수이자 인격이 뛰어난 선수로 존경을 받고 있다. 그는 스스로 가치를 좇아 사는 삶을 선택했기에 후회 없이 행복하다고 고백한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가치기준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 인디언들은 황야를 전 속력으로 질주하다가 갑자기 멈추어 서서 조용히 뒤를 돌아본다고 한다.

그 이유는 자신의 영혼이 잘 따라오는지 살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한다.

진정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치를 좇아 사는 삶을 선택하는 지혜로움이 있길 기대해 본다.

(세밭교회 담임목사)

기고

D학점의 추억



최범채

나의 학창시절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은 D학점을 받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분과 1학년을 무사히 넘어섰던 행운이다. 당시에는 한 학년을 진급하기 위해서는 20여 명의 유급생이 발생했던 시절이었다. 평소 애 A학점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예기치 않은 불운 때문에 D학점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나 자신의 상황에서 나는 심적으로 몹시 괴로웠지만 달갑지 않았던 점수라도 감사히 수용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슬픔과 기쁨의 이중 감정이 요동치는 가운데 나는 병상에 누워서 D학점의 결과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 자신을 위로하였다.

80년도 민주화 항쟁 시절에 거리를 뛰어다니던 내 눈을 최후탄 가스의 자극으로 연일 진물이 질척거렸다. 최후가스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던 그 눈은 1981년 겨울에 방학도 없이 진행된 해부학 실습 시간에 처

명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생각지도 못한 포르말린 알레르기가 내 눈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다. 거울을 통해 나는 핏빛 고막처럼 번들거리는 눈을 안타깝이 바라보아야 했다. 시력저하가 초래되어 눈의 초점이 잘 맞지 않아 자세한 것을 식별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휴식 없이 분과 1학년에 진급하였으나 불행히도 병리학이라는 과목을 이수하는데 공부양도 많았지만 조직 슬라이드 시험은 볼가 능이라는 단어가 쉽게 떠오를 정도로 나에게 불리했다. 시험 중에서 땀 시험은 현미경 10대에 놓여있는 조직표본을 들여다보고 각각의 질병을 판정하는 시험이었다. 주어진 시간은 현미경당 수십 초로 한정되었다.

줄을 서서 시험을 치러야하는 번거로움과 내 앞뒤에 서있는 학우들의 모습만으로도 긴장감이 팽팽하였다. 6학점이나 되는 병리학 과목은 10회기의 시험을 치러서 점수를 환산하였는데 나는 결국 마지막 땀 시험 날 학교에 출석을 못하고 부여있는 눈을 감싸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시험시간이 진행되는 동안에 내 방에서 누워있어야만 했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봐 이미 '시험기간이 끝

났다'고 돌려 댔었다. 어머니는 얹어 누워있던 아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편상에서 동네 아주머니, 할머니들과 담소를 나누는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얼굴 표정과 속내에 담고 계신 근심 때문에 간간히 대화를 잊지 못하신 것 같았다. 학교에서 시험이 치러지고 있을 1시간여 동안의 순간은 나의 육신과 영혼 그리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살면서 누구에게나 불행은 예고 없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들이닥칠 수도 있다. 병상에서 나는 9번의 시험결과만을 가지고 10등분 하여 D학점을 받아 분과 2학년으로 무사히 진급하게 되었다.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심한 안질로 앞을 제대로 못 보는 과정에 서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아들이 언제나 A 학점만 받은 것으로 알고 평생을 편안하게 사시고 운명하셨다.

나는 의사가 되고서 인턴, 레지던트, 대학 교수, 외국 유명대학 연수 지원에서 제출된 D학점 성적 기록 때문에 늘 D학점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변론을 해야 했었다. 결국 D학점을 가지고 있는 나를 선택해주신 분들과 병원에서는 언제나 나의 D학점 결과

물보다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D학점의 아픈 추억을 더 높이 평가해주었다.

살아오면서 식빵을 봐도 D로 보이고 알파벳 D를 봐도 나만의 아름다운 추억이 떠오른다. 학창 시절, 일등을 놓쳐서 억울해하고, 명문 대학에 갔음에도 두각을 내지 못해 불행해 하면서 힘들어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 내 젊음 속에 저런 꼴짜 학점이 없었다면 어찌했을까. 아마 지금보다 훨씬 무미건조한 인간성에 일등 지상주의자들의 편협한 사고방식과 현실 안주형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삶의 탄력성이나 인간의 향기를 맡아내는 마음의 기능은 마른 논바닥 같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젊음 시절 한때의 상처는 인생의 단비다. 없는 상처를 만들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나 다칠 수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의 시기를 기꺼이 환영하는 마음을 낸다면, 반드시 풍요로운 인생을 인도해 줄 햇빛이 분명하다.

젊은이들이여! 1등 못했다고 기죽지 말라. 남들을 밟고 일어서는 것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왜(Why)? 자기철학이 배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분명했던 것은 우리 사회는 똑똑한 사람보다는 현명한 사람이 더 오랫동안 존경받아왔던 사실이다.

(시월병원장)

나만 편하면 된다는 양체 불법주차 강력 단속해야

얼마 전 시내에서 점심시간에 불법 주차 단속요원과 승용차 차주들이 실랑이를 하기에 유심히 봤더니 양체 불법주차객들의 행태가 기막히고 교묘했다.

시내 요소요소에는 불법 주차장을 막기 위해 무단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곳이 많다. 그런데 불법주차 운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졌다. 차를 갖다 댄 후 카메라의 촬영을 막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이 불은 트렁크를 아예 열어 끄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번호판이 하늘을 향해 바라보기 때문에 카

메라가 촬영을 해도 무경이 열린 자동차 트렁크만 찍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불법주차 공간 앞에 있는 식당이나 업소들이 '주차금지'라는 스탠드형 안내간판을 1m높이 크기로 만들어서 자동차 번호판 앞에 딱 하니 가져다 가져주는 수법이다. 이 역시 촬영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리는 양체 운전자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꼴이다.

이 같은 수법이 계속 판치고 단속이 제대로 안 되면 무단카메라는 무용지물이 된다.

단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자기편의주의적 사고 때문에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교통체증과 다른 운전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것을 항시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나재필·광주시 서구 벽진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런던올림픽 개막 태극전사 선전 기대한다

지구촌의 대추제인 제30회 런던올림픽이 27일 밤 9시(한국시간 28일 오전 5시) 개막된다. 이번 올림픽에는 전 세계 205개국에서 1만6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환희와 감동의 무대를 연출하게 된다.

한국은 22개 종목에 245명의 선수를 내보냈다.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내 종합 순위 10위 안에 든다는 이른바 '10-10'을 대회 목표로 삼고 있다. 여기에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인 체조 기를 앞세우고 출전했기 때문이다. 일찌기 출전시켜 달라고 조르는 모양이다.

안철수에게는 있으나, 다른 주자들에게는 없는 그것은 바로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한 철학이다. 바로 이것이 여야의 주자들이 안철수를 질투하거나 공격할 시간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전남대 총장 직선제 찬반투표 신중기하라

전남대가 26일 총장 직선제 존폐를 가를 찬반투표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총장선거 부정과 관련, 당선자가 사퇴해 대학을 이끌 리더십 공백이 우려되는 데다 직선제에 따른 정부의 각종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다분한 상황에서 치러지기 때문이다.

전남대는 이날부터 8일간 전임강사 이상 교수들을 대상으로 직선제 폐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다. 김윤수 총장이 단과대학별 간담회를 통해 직선제 폐지를 설득하는 한편 총동창회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그동안 직선제를 고수해오던 전북대도 지난 24일 교수들의 찬반투표 결과, 직선제 폐지를 확정했다. 이로써 전국 38개 국립대 중 직선제 유지 대학은 전남대·목포대·부산대·경북대 등 4개 대학만 남게 됐다.

문제는 직선제 유지가 올 하반기와 내

년 초로 집중돼있는 정부의 각종 평가를 시 해당 대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교과부는 오는 8월 말 학자급 대출 제한 대학을 결정하고, 9월에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상 대학을 선정하며, 내년 초 향후 7년간 대학의 연구사업지원 여부를 결정할 평가를 하게 된다.

당장 이들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우수학생 외면, 미달 사태 등 3류 대학 전락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최근 직선제를 폐지한 전북대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선거 직전 "직선제를 고집하더라도 강제 폐지당하거나 각종 정부 지원 배제로 대학 존립기반만 흔들리게 될 뿐"이라고 호소할 것도 이런 이유다.

직선제가 대학 자주화와 민주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시대상황이 달라졌고, 학생과 대학에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제 전남대는 호남 거점대학으로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교수들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장성 축령산에는 연중 산림욕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울창한 편백과 삼나무에서 내뿜는 음이온과 피톤치드를 마시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이다.

공기비타민으로 불리는 음이온은 혈액 순환과 살균작용 및 세포의 활성을 촉진시켜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노화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피톤치드를 마시게 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살균효과와 함께 장과 심혈관계 기능이 강화된다.

축령산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호흡기질환과 암환자가 많다. 대부분 장거리를 하는 이들로 인하여 축령산 주변 펜션과 민박집은 방 구하기가 쉽지 않다.

축령산이 인기를 끄는 데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가 최근 전남지역 17개 '치유의 숲'과 도심지역을 대표하는 광주 버스종합터미널의 공기 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축령산은 음이온이 1cc당 204개로 가장 많았고 도심지역에 비해서는 10배나 높았다.

최근 버스커버스의 '여수 밤바다'라 불리는 노래가 인기다. 북고풍의 반복적인 운율은 살짝 중독성을 일으켜 자신도 모르게 '여수 밤바다~'를 흥얼거리게 한다. '여수 밤바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가 반복되는 노래의 배경은 검은모래로 유명한 만성리 해변이다. 신경통에 좋은 모래찜질 명소인 만성리 해변은 요즘 연인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해도림(海島林)



전남도가 축령산과 만성리 해변 등 25곳의 해변·섬·숲을 '해도림(海島林)'이란 이름으로 자연치유 명소로 육성하기로 했다. 심신의 피로감이 심한 현대인들은 음이온과 피톤치드가 풍부한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 자연치유 효과가 크다.

모 공중과 프로그램인 '힐링캠프'에 알려진 유력 대선후보인 안철수 교수가 출현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힐링캠프가 국내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이 된 것은 스키에 타고 지친 현대인에게 안식을 주기 때문이다. 전남의 해도림은 자연이 제공하는 힐링캠프가 아닐까.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y@kwangju.co.kr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